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 5월 17일로 연장

올해 세금 보고 기한이 5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이 7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가 4월 2일 주최한 연방국세청(IRS)관계자 초청 온라인 회견에서 켄 코빈 IRS 소득투자부서 커미셔너는 세금보고(택스 리턴) 마감일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 세금 크레딧(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올해 여름부터 지급되며, 실업수당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코빈 커미셔너는 “납세자들은 5월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을 보고하면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조치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빈 커미셔너는 아울러 “현재 코로나 19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세금보고 대행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기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세금보고는 e파일로 하고 리펀드는 은행 직접 입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IRS는 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인 납세자를 위해 IRS통지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수잔 사이먼 IRS 소득투자부 홍보교육 소비자 지원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세금 관련 기본 정보 및 납세자의 권리, 자녀 관련 필수사항 등을 번역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국장은 또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W7양식을 작성해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신청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장래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면서 “제출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국장은 이어 “TV에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과장 광고를 볼 때마다 착잡한 기분이 든다.”며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는 방법 따윈 없다.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면 상황에 맞는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사이먼 국장은 또 “IRS직원을 사칭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을 보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IRS는 미납 세금 고지서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보낸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IRS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를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 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승윤



- Income Tax Return ■
-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
- Tax Planning Service ■
- Tax Audit Representation ■
- Payroll Services ■
- Sales Tax Return ■
- 사업체 분석 ■
- Accounting System ■
- Member of C.S. ■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Michael S. Oh CPA

접할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LA총영사관, 무료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총영사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오후 6시~오후 8시,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월간 법률 상담소’로 명명된 이 행사는 총영사관이 아시아인-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AAAJ-LA),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KAB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4월 ‘월간 법률 상담소’는 28일(수)에 열린다. 주제는 ‘팬데믹과 세입자 주거권’으로 건물주의 차별 행위나 괴롭힘, 퇴거 요구, 주거환경 및 리스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800)867-3640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 근무 중 또는 창업 시 발생

되는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4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은 ●유학생, 인턴 또는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체류자격, 취업 준비, 근로 및 해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창업 시 고려할 법적 문제, 세금보고 문제, 투자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접수하면, 전문 변호사(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스타트업 전문 성기원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주 노선 취항 예정 ‘에어프레미아’ 1호기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어프레미아 1호기 앞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인천 - LA노선 운항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1호기 보잉 787-9가 미국 시애틀을 떠나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787-9는 길이 62.8m, 높이 17m, 너비 60.1m이며, 운항 거리는 1만5천500km가 넘는 중장거리 비행기다. 항공기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56석, 이코노미 253석

등 총 309석이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좌석 간 거리가 35인치로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가장 넓다.

에어프레미아는 우선 동남아 등에 연내 취항한 뒤 2·3호기를 추가 도입해 인천 - LA 노선 등 미주 노선 운항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1호기 도입과 맞물려 공동 대표체제를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 등을 역임한 김세영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심주엽 대표가 단독 대표를 맡았다.

심주엽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787-9는 친환경 고효율을 자랑한다.”며 “안전 운항에 중점을 두고 새 비행기로 고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